

철도건축공사 현장기술자의 근로실태 및 직무만족도 분석

Analysis on the Work Status and Job Satisfaction of Construction Engineers

임형은*, 노주성*, 김재엽*†

Hyeong-Eun Lim*, Ju-Seong Noh*, Jae-Yeob Kim*†

Abstract As the income level of Korean workers improves,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place a high value on the quality of life.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work-life balance as a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working hours and job satisfaction of construction engine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job satisfaction among construction engineers was below the average in working hours and leisure time. Job satisfaction by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ne's boss at work. Job satisfaction was high in positions such as a plain clerk and a deputy manager, but it was low in positions higher than a department manager.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for workers at the government level.

Key words: Construction engineer, Quality of life, Work-life balance, Job satisfaction

1. 서론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일과 삶의 분리 혹은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의미인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1].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직무만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 또한 높아진다[2].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철도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기술자들의 근로시간과 직무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공사현장 기술자의 근로실태 분석

2.1 설문개요

† 교신저자: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kimjy67@ut.ac.kr)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기술자 59명을 대상으로 근로현황과 직장에 관한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 및 수거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56부를 대상으로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철도건축공사 현장기술자들의 근로시간

2018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관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철도건축공사 현장기술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내용 중 근로시간에 관한 항목을 Tabl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은 일평균 12시간 이상(41.1%), 월평균 24일(53.6%)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매월 6일 정도의 휴무일을 가지고 있다. 한 주에 1.5일의 휴무를 하며 주당 근로일수는 약 5.5일로 시간(일평균 12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주당 66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당시(2017년 9월)법정 근로시간인 68시간에 매우 근접하며 현장기술자들의 근로시간은 적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Table 1. Daily and monthly average working conditions

Daily working hours			Monthly working days		
working hours	freq	rate	working days	freq	rate
8h or less	0	0	22day or less	3	5.4
8-9h	5	8.9	23day	3	5.4
9-10h	6	10.7	24day	30	53.6
10-11h	12	21.4	25day	11	19.6
11-12h	10	17.9	26day	5	8.9
over 12h	23	41.1	over 27day	4	7.1

3. 공사현장기술자의 직무만족도 분석

3.1 현장기술자의 직무만족도 분석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감정적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충족 정도는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3]. 현장기술자들의 근로의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장생활에서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설문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많은 수의 현장기술자들은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평균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2. Job Satisfaction of Construction Engineers

Division	N	Mean	SD*
pay	56	3.45	.737
working hours	56	2.89	.824
leisure hours	56	2.80	.942
job stability	56	3.43	.892
detail of business affairs	56	3.43	.783
superior at work	56	3.73	.674
junior colleague	56	3.70	.685

*Standard Deviation

3.2 직급별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

철도건축공사 현장기술자의 직급별 직무만족도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장생활에서 직급에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각각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집단은 Group 1(사원, 대리), Group 2(과장, 차장), Group 3(부장이상)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직급별 직무만족도는 직장상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떤 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Group 1과 Group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상사의 만족도는 Group 1에서 가장 높게(평균 4.05) 나타났으며 Group 3에서 낮게(평균 3.25) 나타났었다.

Table 3. Post-hoc comparison result

SV*	Division1	Mean	Division2	SP**
superior at work	group 1	4.05	group 2	.155
			group 3	.003
	group 2	3.68	group 1	.155
			group 3	.157
	group 3	3.25	group 1	.003
			group 2	.157

*Subordination Variable, **Significance probability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철도건축공사 현장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장기술자들은 설문당시 법정근로시간에 매우 근접한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적지 않은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직무만족도는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에서 평균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다수의 현장기술자들은 직장생활에서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에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별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직장상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원, 대리' 직급에서 평균값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장이상' 직급에서 평균값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차원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정책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hinsung A&E Research Grant, 2018.

참고문헌

- [1] Jeong JS(2016) 10 years later Korea – Now is the quality of life, Jisik Gonggam, pp. 4-20.
- [2] An BH(2008)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public officials' leisure activity with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PhD Thesis, Kyonggi University.
- [3] Lee HS, Yun SY, Kim KH, Kim JJ(2015)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 of Construction Site Working Conditions on Worker Satisfaction -Regarding the Korean and Korean-Chines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15(5), pp. 527-536.